

한우협회 “합리적 가격 기준점 제시… 소비자 부담 경감”

한우 가격 정보 앱 ‘여기고기’ 론칭
알뜰판매점 홍보 등 소비거점 조성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재추진 건의
내일 전국서 ‘한우의 날’ 기념 행사

전국한우협회가 한우 가격 정보 앱인 ‘여기고기’를 론칭하며,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처럼 판매소별 가격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가격기준점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세종시 금남면의 노릇노릇 캠핑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11월1일 한우 먹는 날’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간담회를 통해 소매가격이 비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설명했다. 전국의 한우 알뜰판매점을 홍보해 산지 가격과 소비가격의 연동을 유도하고, 로컬푸드 개념을 기반으로 한 지역 한



지난 28일 세종시 금남면의 노릇노릇 캠핑장에서 열린 ‘11월1일 한우먹는 날’ 기자 간담회에서 민경천 한우협회장(오른쪽)과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이 참석해 한우농가와 소비자 편익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대환 기자

우 소비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협의 유통단계 축소와 하나마트 권장판매가격 제시 등을 통해 도소매가격의 연동성을 강화하고, 민간 유통채널의 가격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협회는 한우 가격과 관련해 정부에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으로 추진됐던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의 재추진을 건의하고 있다. 민경천 한우협회 회장은 “단기적 대책으로 추진 중인 대대적 소비촉진과 별도로, 중장기적인 소비 안정화를 위해 축

산물 직거래 판매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한우의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고 산지가격연동제도와의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우수급안정 전담반(TF)의 최우선 과제로는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을 꼽았다. 선제적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비육용 암소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농협 4대 공판장 전광판에 미경산암소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소비 단계에서도 이를 표기하면 비육용 암소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번식 농가 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논의해 온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에 대해서도 마침표를 찍을 계획이다.

협회는 내달 1일 한우의 날을 기념해 한우고기 반값할인 및 숯불구이축제 등 다양한 ‘한우 먹는 날’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올해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준비됐다. 지난해에 이

어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 앞 특별행사장에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한 다. 개막식에서는 한우곰탕 300인분 나눔과 전국한우협회 홍보대사 차민욱 셰프의 한우 라이브 쿠킹쇼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9개 오프라인 유통사와 쿠팡, SS G닷컴, 지마켓, 11번가 등 6개 온라인 업체, 우리한우판매점 등 28개 유통채널에서는 내달 8일까지 한우고기를 정가가 대비 최대 65%까지 할인판매한다.

민경천 회장은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은 국민적 한우사랑에 대해 한우농가가 저렴한 가격으로 보답하는 진심을 담은 감사제다”라며 “이날만큼은 5000만 국민이 한우로 하루를 채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대대적인 한우할인행사와 축제를 준비했으니 마음껏 즐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농진청, 버섯 소재 친환경 포장재 상용화

버섯 수확 후 배지·균사체 이용
기존 스티로폼보다 강도 4배 우수
실질적 상용화 사례 이번이 처음

버섯을 활용한 친환경 소재가 대량 생산돼 친환경 포장재 등으로 사용된다.

농촌진흥청은 30일 버섯 균사체를 활용한 친환경 산업소재 개발한 이후 3년여의 민관 협력 연구를 거쳐 산업화의 첫걸음을 떼게 됐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환경보존과 자원순환, 해외 기업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자 2021년부터 원천기술 확보 연구에 돌입했다. 그 결과, 버섯 수확 후 배지와 균사체를 이용해 스티로폼 대체 소재, 가죽 대체 소재 등 핵심 제조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 7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는 버섯 수확 후 배지에 양분·수분을 공급, 내외부 균사체가 치밀하게 자라게 하는 배양 기술로 만든다. 농진청 독자 기술로 만든 포장재는 기존 스티로폼보다 강도가 4배가량 우수하다.

가죽 대체 소재는 톱밥 위에 면섬유를 놓고, 균사체가 자라게 한 뒤 균사체와 면섬유를 동시 수확해 만든다. 동물 가죽보다 탄소 배출량과 물 사용량을



김명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버섯 수확 후 배지와 균사체를 활용해 스티로폼 대체 소재, 가죽 대체 소재 등 핵심 제조 기술을 개발, 7건의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시

90% 이상 줄일 수 있다. 농진청은 버섯 가죽 제조 핵심기술과 토종버섯 균주 3종을 확보했다.

농진청은 균주 확보, 배양, 소재 제조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우선 스티로폼 대체 소재 상용화를 위해 새싹기업과 버섯 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민관 협업 시스템 ‘가치성장’을 구축했다. 농촌진흥청이 균주와 기술을 농가와 산업체에 제공하면, 농가와 산업체는 농가 배양 시설을 이용해 소재를 생산한다. 농가는 농산부산물의 재활용과 빈 배양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기업은 적은 자본으로 대량 배양시설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된 셈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원료비 절감 효과는 36.4%, 신선 버섯 생산 판매 외 추가 이익은 약 8억원 정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균사체를 활용한 포장 완충 소재를 단기간에 2만~3만개 생산해 실질적 상용화를 이뤄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기관, 농가, 업체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 온 기술 개발을 통합해 협업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현장과 버섯 농가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균사체 기반 소재 산업화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차상근 기자 skc8472@

탄소감축 기업 돕는다… 800억 융자 지원

산업부, 대상 기업 추가 모집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8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2024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10월 31일 ~ 11월 18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는 온실

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연구개발 프로젝트다.

산업부는 앞서 1,2차 공모를 통해 올해 21개 신규 프로젝트를 선정해 향후 3년간 총 2513억원의 융자지원 계획을 확정했으며, 이후 추가 자금을 확보해 이번 3차 지원 공모를 개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럽연합(EU)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2023년 10월 시범운용)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력

을 높일 수 있도록 철강·시멘트·수소·알루미늄·비료·전력산업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선정평가 시 가점(2점)을 부여한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500억원까지, 최대 10년간(3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저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기준 적용 금리는 중소·중견기업은 1.43%, 대기업은 1.93%로 1년 변동 금리다.

융자비용은 프로젝트 총 투자금액 대비 중소기업은 100%, 중견기업은 90%, 대기업은 50% 이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농식품부, 가공용 쌀 온라인 거래 연내 개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서 진행

정부는 가공용 쌀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내 거래가 연내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거래되는 가공용 쌀은 농협 미국종합처리장이 생산한 고품질 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연말까지 약 4400톤(40억 원) 규모의 가공용 쌀 매매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거래는 쌀가공협회가 소속 회원사(총 1744곳) 업체의 희망 물량을 일괄 구매해 배정하는 공동구매 형태로 이뤄진다. 기존에는 개별 업체가 가공용 쌀을 구매하기 위해 미국종합처리장을 직접 찾아가다남에 따라, 거래가격 협의, 품질 확인 등 거래 성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반면 이번 거래는 쌀가공협회가 전문 구매 대행 기관으로서 가격 협상, 품질 검증, 물량 배송 등의 행정 절차를 수행한다. 기존의 산발적이던 거래를 통합 진행해 거래 과정을 효율화한다.

협회에 따르면 기존에는 판매자 정보가 부족하여 원하는 품질의 원료를 공급받기 어려웠다. 이번 거래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공동구매의 첫 사례인 만큼, 농식품부도 향후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 다품목 소량 합·배송 지원 등 공동물류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쌀가공업체의 미국종합처리장 쌀 구매는 쌀 소비 확대에 이어질 전망이다. 쌀가공산업은 2022년 국내 매출액이 8조 원을 넘어서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국내시장 규모는 7%, 수출액은 19%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엄격한 품질 관리체계를 갖춘 미국종합처리장 쌀을 활용하는 만큼, 쌀가공업계는 원료 고급화를 통한 제품 차별화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미국종합처리장 업체도 온라인도매시장을 반기는 분위기다. 거래 후 즉시 대금정산으로 미수금 발생 우려가 없어 현금흐름이 개선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전 ‘빅스포’, 에너지 신기술 최초 공개

150여개 에너지 관련 기업 참여

국내 최대 에너지 산업 박람회 ‘빅스포(BIXPO) 2024’가 내달 6일 광주에서 개막한다. 한국전력은 이날부터 8일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내외 150여개 에너지 관련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빅스포 2024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0회를 맞은 빅스포는 ‘에너지 미래로 향하는 여정’을 주제로 신기술 전시회, 국제컨퍼런스, 국제발명특허대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첫 날 개막식에서는 요 콕스(Jo Cop s)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회장이 기

조연설을 통해 미래 전력망 확충과 K-Grid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DC(직류) 비전 선포’를 통해 제2의 전력망 혁신의 실현계획과 의지를 천명한다.

이날 빅스포 역사상 처음 시행하는 신기술 공개 행사도 별도 진행된다. LS일렉트릭, LS전선, HD현대일렉트릭, 아모지(AMOGY) 등 국내외 에너지기술 선도기업들이 참여해, 최첨단 에너지 신기술과 제품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신기술 전시회(6~8일)는 ‘청정성’, ‘안정성’, ‘효율성’ 등 3개 메인 테마로 구성되며, 대기업과 글로벌 선도기업들이 참여해 차세대 전력기술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한다. /세종=한용수 기자